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박 정 희

이 은 희[†]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과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아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과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자원인 자기 통제력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마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1, 2학년 18개 학급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 정체성, 강박증 및 불안/우울 중에서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성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불안/우울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강박증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자아정체성이며, 불안/우울 및 강박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심리적 기제를 발견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 진로미결정, 자기통제력, 사회적 지원

* 본 논문은 박정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200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은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E-mail : ehlee@kyungnam.ac.kr

개인의 생애에 있어 진로선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후기 청소년기와 전기 성인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발달적 과제이다(Super, 1990). 그러나 진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제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에 관한 연구 분야의 발전을 야기했다. 사실 ‘진로미결정’이라는 연구 주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진로심리학 분야의 중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Betz, 1992; Tinsely, 1992; Tien, 200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예, 고향자, 1992; 김봉환, 1997; 김민정, 김봉환, 2007; 백지숙, 2006). 그런데 진로미결정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Creed, Patton, & Prideaux, 2006), 외국에서의 14세에서 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Lounsbury, Hutchens, & Loveland, 2005)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서(서미경, 2002),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최대고민은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2003; 연합뉴스, 2006, 7, 20). 그런데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서, 이때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진로관련 목표들과 포부들 발달시켜야 한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입학을 위한 교과목 위주의 교육과 진로진도의 부재와 같은 현 사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인 영

향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장래 진로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진로미결정의 상태에서 합격위주의 대학진학을 하다보니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자신의 진로선택에 후회를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진로 상담이 진로 미결정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때, 결국 진로상담은 진로를 결정한 학생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진로 관련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없고 진로선택에 전념할 능력이 없고(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진로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Germeijs & Boeck, 2003) 직업 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Crites, 1981). 초기에는 결정상태(decided)와 미결정 상태(undecided)의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Holland & Holland, 1977)를 하였으나 현재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다차원적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De Bruin & Du Toit, 1997; Fuqua, Blum, & Hartman, 1988; Fuqua & Newman, 1989; Jones, 1989; 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Lucas, 1993; Newman, Fuqua, & Minger, 1990; Rojewski, 1994; Savickas, 1995; Stead, Watson, & Foxcroft, 1993; 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Wanberg & Muchinsky, 1992; Gorden & Meyer, 2002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과 직업적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발달적 미결정 상

태와 성격적인 우유부단함과 정체성 혼란 및 특성불안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일반화된 미결정 상태의 2가지의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Betz, 1992; Lewko, 1994; Santos & Coimbra, 2000; 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에서 재인용), Germeijs와 Boeck(2002)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 2가지 구성개념이 다름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진로미결정은 크게 발달적 미결정 상태로 결단성이 없는 미결정 상태(being undecided)와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무결정 상태(being indecisive)라는 2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Callanan & Greenhaus, 1992), 내담자의 진로미결정 상태에 따른 적합한 상담적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Gordon, 1998; Lucas, 1993). 즉 발달적 미결정은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지식에 연유한 단순한 미결정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서 쉽게 해결되는 반면에, 만성적 미결정은 성격적 결합에 연유한 것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심각하고 만성적인 진로결정의 곤란을 수반하므로(Saka & Gati, 20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개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미결정 특성에 따라서 다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진단과 차별화된 처치’(Fuqua & Hartman, 1983)가 필요하다. 요컨대, 진로상담에서는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내담자를 차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때 적절한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Salomone, 1982; Savick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에서 재인용).

만성적 진로 미결정 집단은 높은 불안수준, 자신과 선택과정에 대한 부정적 사고, 확산된 개인적 정체감이 특징인(Cohen, Chartrand, &

Jowdy, 1995; 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Meldahl & Muchinsky, 1997; Saka & Gati, 2007에서 재인용), 정서적 성격적인 면에서 유래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예, Amir & Gati, 2006; Santos, 2001). 그러므로 정서적 성격적인 면에서 유래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만성적 미결정상태는 단순한 정보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발달적 미결정상태보다 더 심각하며 통상적인 진로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장기적 개입이 요청된다.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사람들 중 적어도 16%는 심리적 문제들로 인한 우유부단한 사람들로써 전통적인 진로상담을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Hartman, Fuqua, & Blum, 1985; Osipow, Camey, Winer, Yanico, & Koschir, 1976; Brown & Brooks, 1991에서 재인용) 이들에게는 진로문제보다는 성격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임을 시사한다. 즉 만성적 진로미결정자들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Saka, Gati 및 Kelly(Saka & Gati, 2007에서 재인용)는 선행연구들에서 진로미결정 및 우유부단한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확인된 변인들의 원인과 공통적인 특징들 및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정서적 성격적 요인들의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즉 그들은 비판적 시각과 불안 및 자기개념/정체감이라는 3가지 군집에 기초하여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11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비판적 시각 군집은 자신과 세계에 관한 역기능적 시각과 부정적 인지적 편견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구성되어있고, 불안군집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불안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은 그 개인의 보다 심층적이고 만성적인 성격적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들 중에서, 비관적 시각군집으로서 우울을, 불안군집으로서 불안과 강박증을,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으로서 자아정체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은 진로 탐색, 자아 통제, 성 차이, 성역할 사회화와 연관되어있으며, 자아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발달 수준이 높고(Marcia, 1980),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en, Chartand, & Jowdy, 1995). 자아정체성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정체성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인다(김은진, 천성문, 2001; Cohen et al., 1995; Hartman & Fuqua, 1983;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Santos, 2001; Saka & Gati, 2007; Tokar et al., 2003; Vondracek, Schulenberg, Skorikov, Gillespie, & Wahlheim, 1995). 선행연구들에서 심리적 변인들 중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Saka & Gati, 2007; Santos, 2001;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자아정체감이 가장 핵심적인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성격특성으로 여겨진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신민섭, 오경자, 1993), 에릭슨은 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들은 혼미상태에 빠져 목적 없이 떠돌며 우울해지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울은 집중력과 의사결정의 어

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울한 내담자는 진로결정과 관련되는 문제해결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Saunders et al., 2000). Constantine과 Flores (2006)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및 신체화 증상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들이 내담자의 진로미결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높은 불안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Heppner & Hendricks, 1995, Saka & Gati, 2007; Santos, 2001; Wanberg & Muchinsky, 1992), 불안이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uqua와 Hartman, 1983; Gorden, 1981). 특히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이 장래의 내담자들에게는 진로상담 받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을 조기에 중단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에 대한 개입이 상담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Weinstein, Healy, & Ender, 2002).

전통적으로 우울과 불안은 이론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제안되어 왔지만, 임상적으로 우울과 불안은 자주 중복되어 나타나고, 우울장애와 동반이환율도 높다고 보고되고, 일부 학자들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울과 불안이 공존하는 불안-우울 혼합형을 하나의 장애로 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Fava et al., 2000; Barlow & Campell, 2000; 조현주 등, 2007에서 재인용)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도 스트레스가 불안을 촉발하고 이 불안이 다시 우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므로(Barlow, 2000),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증상이 모두 포함된 우울/불안 증상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개인적 성격 특성 중 가장 높은 예언력을 보인 강박증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현주, 2000). 즉, 강박적 행동을 하기 직전에는 심한 불안, 긴장과 강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계현, 2000).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기 때문에 불안/우울을 경험하고, 또 불안/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목표를 더 높게 세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불안, 우울, 강박증 등과 같은 심리적·성격 특성들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진로미결정이란 자아정체감, 불안/우울, 강박증 등의 문제로 인한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에 뿌리를 둔 보다 항구적인 무능력을 반영하는(Callanan & Greenhaus, 1992)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지원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데, 사회적 지지를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인정과 도움 등은 청소년들의 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수준을 높여주게 된다(권희경, 1996; 이선영, 2004; 한수현, 2003).

Bau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Lent, Brown, & Hackett, 2000)에서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 환경적 및 행동적 변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연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변인들 중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 성과기대, 개인적 목표의 주된 역할을 강조하지만 개인적 통제의 발휘를 촉진하거나 제한

시키는 상황적 영향요인인 사회적지원이나 장벽들에도 동등한 관심이 있다. Lent 등(2000)은 상황적 영향 요인 중에서 진로장벽에 비해서 진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기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탐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내담자의 개인적 투입(성향, 성, 인종/민족, 장애/건강상태)이 환경적 영향요인인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가정에 따라 개인의 성격적 문제와 진로미결정간에 사회적 지원이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 통제력이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남이 보지 않거나 보상이 없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통제능력 때문이며 사회화된 많은 행동들은 내적으로 통제된 결과다(고정자, 2005). 즉 자기 통제력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김현숙, 1998)으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진로, 취업 및 사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스스로를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한다(Heppner & Petersen, 1982). 이러한 자기 평가는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며 진로 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진로 목적을 정하는데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황설영, 2005). 이현주(1998)의 연구에서 개인의 통제력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의 차이가 있고, 진로미결정수준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00)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의 기본적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 동기에 대한 접근이다. 관계성이란 개인들이 중요한 타인들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유능성이란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의 느낌이며,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규제하는데 있어서의 선택의 경험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Guay, Ratelle, Senecal, Larose, & Deschenes, 2006)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은 지각된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타인들이 그들의 시각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과 지각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정보와 선택을 제공하고, 압력과 통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표출할 때 자신이 유능하고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역으로 과제에 대한 마감 압박을 부과하고 개인의 수행수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 같은 통제적 행동이 나타날 때, 그 개인의 지각된 유능성과 관계성 및 자율성이 좌절된다고 본다. 결국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지지적 환경들이 유능성, 자율성 및 관계성에 대한 지각을 촉진한다.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 변인이 내담자의 성격적 요인임이 확인된 바 있으나(Leong & Chervinko, 1996).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부모나 친구 같은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성격적 문제가 진로미결정에 이

르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정서적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적어서 유능성을 적게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자율성을 좌절시키는 경험을 많이 하여서 부모나 친구에게 통제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력을 떨어뜨려서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들이 부분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이들 중에 어떤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적 요인들이 진로미결정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만성적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내담자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 이들의 진로 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담자의 개인적 자원인 자기 통제력과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자아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과 진로미결정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결과를 진로미결정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전략의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개인적 특성(자아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이 진로 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 특성들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1, 2학년 18개 학급 600명을 대상으로 불안/우울과 강박증 척도, 자아정체성 척도, 진로미결정 척도, 사회적 지원 척도, 자기 통제력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안/우울, 강박증척도, 자아정체감척도, 진로 미결정 척도, 사회적 지원 척도, 자기 통제력에 관한 설문을 수업시간에 측정하였고,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협조문을 첨부하였으며, 설문내용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안내문도 첨부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와 응답문항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555명의 청소년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555명의 자료 중 다변량 극단치로 추정되는 5부를 제외한 55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진로미결정 척도

박종원(2002)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미결정척도 4점 척도 49문항 중 자기명확성 부족 3문항, 진로관련 정보부족 3문항, 결단성 부족 5문항, 외적장애 6문항, 결정의 필요성 부족 5문항 등 총 22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선정된 22문항을 SAS를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직업 정보/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 우유부단 성격)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한 개의 요인에만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만 요인에 포함시킨 결과 4개의 요인 20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 미결정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불안/우울 척도

청소년들의 불안/우울을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및 이해련(2001)이 표준화한 K-YSR (Korea-Youth-Self Report)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 3점 척도 119문항 중에서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 되고, 매사에 흥미를 잃어버리며 의욕이 없고, 희망을 잃은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임상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경증의 주 증세를 포함하는 위축 우울/불안 13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우울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강박증 척도

김광일, 김재환, 그리고 원호택(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재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중 강박증 3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박증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자아정체성 척도

박아청(1996)이 개발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및 친밀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형 자아정체성 척도 5점 척도 4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척도를 역코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정체성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성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것을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 재구성한 5점 척도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부모, 교사,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도움으로 정서적 지지(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칭취 등), 물질적 지지(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 정보적 지지(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평가적 지지(칭찬이나 인정 등)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 척도

Hep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력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5점 척도 32 문항 중 개인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6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강박증, 우울/불안, 개인의 통제력, 사회적 지원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차와 학년에 기인한 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통제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진로 미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아정체성, 강박증, 우울/불안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진로 미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 개인의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강박증 및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아정체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의 3가지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LISREL8(Jöreskog & Sörbom, 1993)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NFI(Non-Normed Fit Index, Marsh, Balla, & McDonald, 1988),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χ^2 , χ^2 에 대한 p 값 등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χ^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χ^2/df 가 2이하인 바람직하지만(Bryne, 1989) 3이하인 경우까지(Kline, 1998) 자료가 잘 부합된다고 보았으며,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단일모형을 검증하는 방식, 경험모형을 설정하여 그 중 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 가설적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모형을 수정해나가는 방식(Joreskog & Sorbom, 1993)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부분매개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고 이 모형의 부합도가 높을 때만 경험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하는 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진로미결정, 자아정체성, 강박증, 우울/불안,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지원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강박증 및 우울/불안은 진로미결정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66, p < .001$; $r = .36, p < .001$; $r = .26, p < .001$).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부족하고, 강박증 및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은 진로미결정과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34, p < .001$; $r = -.32, p < .001$).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1. 진로미결정	—					
2. 자아정체성	.66***	—				
3. 강박증	.36***	.51***	—			
4. 우울/불안	.26***	.44***	.58***	—		
5. 자기통제력	-.34***	-.47***	-.39***	-.32***	—	
6. 사회적지원	-.32***	-.41***	-.14***	-.29***	.23	—
평균(M)	20.05	130.07	9.19	10.01	16.01	84.85
표준편차(SD)	8.32	25.15	3.51	4.44	3.20	16.01

주. N=550.

* $p < .05$, ** $p < .01$, *** $p < .001$

자아정체성, 강박증, 우울/불안,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지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 강박증, 우울/불안, 자기통제력

표 2.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β
1	학년	-1.34	-.10*
	성별	-1.34	-.08
	R^2	.022	
2	학년	-.62	-.04
	성별	-.41	-.02
	자아정체성	.21	.64***
	강박증	.19	.08
	우울/불안	-.13	-.07
	R^2	.440	
	ΔR^2	.418***	
2	학년	-.80	-.06
	성별	-.57	-.03
	자기통제력	-.74	-.29***
	사회적지원	-.12	-.24***
	R^2	.186	
	ΔR^2	.164***	
	3	학년	-.52
성별		-.27	-.02
자아정체성		.20	.60***
강박증		.20	.08
우울/불안		-.16	-.09*
자기통제력		-.11	-.04
사회적지원		-.04	-.07*
R^2	.445		
ΔR^2	.005*		

및 사회적 지원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로 미결정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학년과 성별(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자아정체성과 강박증 및 우울/불안과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을 각각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을 투입하였다.

표 2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자아정체성과 강박증 및 우울/불안 변인들에 의해서 41.8%가 설명되고,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지원 변인들에 의해서 16.4% 설명된다. 또한, 자아정체성, 강박증 및 우울/불안을 통제하고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지원 변인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0.5% 설명된다.

표 2에서 보면 2단계에서 강박증이나 불안/우울보다 자아정체성이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더 미치며, 사회적 지원과 자기통제력 변인이 청소년들의 진로 미결정 수준에 유익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통제력,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자아정체성, 강박증 및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아정체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1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 N = 550) = 89.27, p < .001, \chi^2/df = 5.95, NNFI = .925, CFI = .980, RMSEA = .095$).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이 자아정체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모형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2가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15, N = 550) = 33.12, p < .001, \chi^2/df = 2.21, NNFI = .978, CFI = .987, RMSEA = .047$).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2(우울/불안이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직접 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와 완전매개모형(우울/불안이 직접 영향을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적 모형2와 경합모형1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 (1, N = 550) = .082, p > .05$). 따라서 간략한 모형인 경합모형1(완전매개모형)이 가설적 모형2(부분매개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사회적 지원 및 자

표 3. 가설적 모형2와 경합모형1의 부합도(N = 550)

모형	χ^2	df	p	χ^2/df	NNFI	CFI	RMSEA
가설적 모형2	33.12	15	<.001	2.21	.976	.987	.047
경합 모형1	33.92	16	<.001	2.12	.978	.987	.045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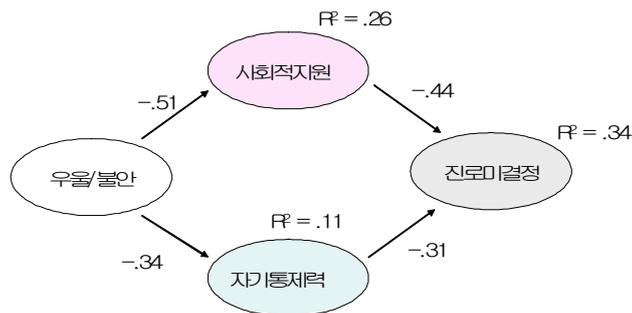


그림 1. 우울/불안, 사회적 지원, 자기 통제력과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기 통제력간의 최종모형인 경합모형1의 구조 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1, t = -7.76, p < .01$, 자기 통제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4, t = -6.43, p < .01$.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통제력 수준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 = -.44, t = 6.25, p < .01$; $\beta = -.31, t = -5.74, p < .01$.

결국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사회적 지원을 떨어뜨리는 방식과 자기통제력 수준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들의 진로 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beta = .33, t = 6.76, p < .01$).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2의 구조모형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변량의 26%를, 자기통제력 변량의 11%를, 진로 미결정 변량의 34%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2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박증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본 연구가설적 모형3이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15, N$

$= 550) = 37.03, p < .001. \chi^2/df = 2.47, NNFI = .974, CFI = .986, RMSEA = .052$

모형비교.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3(강박증이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미결정 수준에 영향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강박증이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적 모형3과 경합모형2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1, N = 550) = 15.97, p < .001$). 따라서 가설적 모형3이 경합모형2(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강박증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강박증은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59, t = -8.12, p < .01$, 자기 통제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 t = -4.37, p < .0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강박증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적 모형3과 경합모형2의 부합도(N = 550)

모형	χ^2	df	p	χ^2/df	NNFI	CFI	RMSEA
가설적 모형3	37.03	15	<.001	2.47	.974	.986	.052
경합 모형2	53.80	16	<.001	3.36	.959	.976	.066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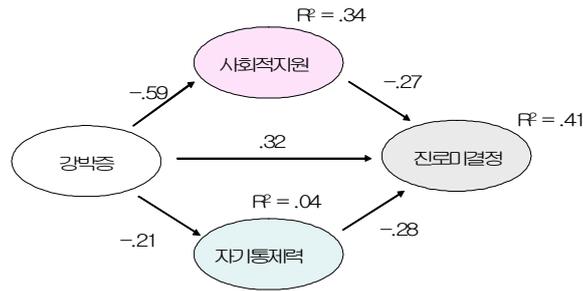


그림 2. 강박증, 사회적 지원, 자기 통제력과 진로미결정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beta = .32, t = 3.96, p < .01$. 그러나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 수준은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 = -.27, t = -3.15, p < .01$; $\beta = -.28, t = -5.15, p < .01$. 결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강박증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을 높일뿐만 아니라($\beta = .32, t = 3.96, p < .01$) 사회적 지원과 자기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beta = .21, t = 3.92, p < .01$).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2의 구조모형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변량의 34%를, 자기 통제력 변량의 4%를, 진로미결정 변량의 41%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3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강박증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자원인 자기 통제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적 변인들(자아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 중 자아정체성 부족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변인들 중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 연구결과들(Saka & Gati, 2007; Santos, 2001; Saunders et al., 2000)과 일치하며,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성격 특성임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에 우선적으로 이들의 자아정체성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Blustein, Devenis 및 Kideny(1989)이 제안한 것처럼 이들이 학업적 흥미와 적성의 탐색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되는 대인관계, 사회 영역등과 같

은 분야에 까지 자기탐색을 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에릭슨은 정체성 형성을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조절과정으로 보았다(Berg & Erlin, 2005). 즉 자아정체성 형성과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피드백, 또래집단의 피드백, 학교교사 등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환경의 또래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킨다(강미애, 1991; 김형태, 1989; 박미석, 조혜진, 2002).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이은희, 정순옥, 2006),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진로상담 전략임을 시사한다. 결국 학교상담 현장에서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적 개입을 실시할 때에는 광범위한 영역에 까지 자기탐색을 하도록 격려하여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되는 직업선택이나 가치관 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상담전략과, 이들이 또래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훈련, 의사소통 훈련 등의 대인관계 증진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인정과 도움 등은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여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

결정수준을 높여주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권희경, 1996; 한수현, 2003; 이선영, 2004)과 일치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심, 신뢰와 인정, 적절한 정보와 피드백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심리적 적응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효과 가설과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 미결정의 하위 유형은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지식에 연유한 단순한 미결정인 미결정 상태(being undecided)와 만성적인 성격적 결함에 연유한 우유부단한 무결정 상태(being indecisive)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Callanan & Greenhaus, 1992), 미결정 상태(being undecided)에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탐색, 구체적 직업정보의 활동,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자기탐색, 직업정보의 제공 및 의사결정 연습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상담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김봉환 등, 2006)이 타당함을 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주위 사람들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기에 필요한 직업정보와 자신의 장단점, 흥미, 성격 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한 미결정 상태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에 청소년 내담자의 부모, 교사, 친구 및 이웃사람 등 주변사람들을 사회적 지원체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통제력에 따라 진로

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현주(1998)의 연구, 개인의 통제력과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황철영(2005)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자기 통제력이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생겨나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들을 잘 관리하고 지각하며, 문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직접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Hepner & Petersen, 1982).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진로미결정을 억제하는 요인임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시에 이들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상담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강박증 및 불안/우울과 진로미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 친구의 자율성 지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을 올려주고, 다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율성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고, 친구의 통제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을 떨어뜨리고, 다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율성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Guay, Senecal, Gauthier 및 Fernet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00)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강박증 및 불안/우울의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적어서 자율성을 적게 경험하여 결과적

으로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자율성을 좌절시키는 경험을 많이 하여서 부모나 친구에게 통제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력을 떨어뜨려서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불안/우울 및 강박증의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사회적 지원(친구, 부모)의 부족을 경험하며 주변인(친구, 부모)의 많은 통제를 경험하여 결국에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Lent 등(2000)이 주장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주장한 개인의 성격적 문제와 진로미결정간에 사회적 지원이 매개한다는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Lent 등의 연구(2003)와 Lent, Brown, Nota 및 Soresi(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 자기효능감 변인까지 포함된 추후연구를 통해서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결정이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진 결정자와 미결정자로 구분하고 미결정자를 다시 상황적 혹은 발달과정상 진로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와 성격적 결함에 연유한 만성적인 상태의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진단과 차별화된 처치’(Fuqua & Hartman, 1983; Gordon, 1998; Lucas, 1993)를 추천해 왔다. 만성적인 미결정과 관련

되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예, 이영선 등, 1999; 이현주, 2000; Hartman, Fuqua, & Hartman., 1983; Leong & Chervinko, 1996), 청소년의 성격적 결함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지에 관하여 규명된 바는 없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내담자의 개인적 성격특성이 어떻게 부모나 친구 같은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부족이 진로미결정의 가장 강력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들 주변의 사회적 지원과 자신의 통제력이 진로미결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강박증 및 불안/우울이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박증, 불안/우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 집단을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학을 염두에 둔 인문계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대학생 청소년들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인성특성들(예,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관련 변인들(예, 문제해결력, 대처방식)까지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애 (1991). 농어촌 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희경 (1996). 장애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건강진단실시요강. 서울: 중앙 적성 출판부.
- 김동민,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학교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 정체감을 매개로. 한

- 국동서 정신과학회지, 4(1), 147-162.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 요인에 관한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석, 조혜진 (2002).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7, 67-88.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140-162.
- 박종원 (2002).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지숙 (2006).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10.
- 서미경 (2002).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6(3), 67-91.
- 신민섭, 오경자 (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대학생활연구, 11, 71-8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연합뉴스 (2006, 7, 20). 청소년 최대의 고민은 진로, 성격.
- 이선영 (200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변량 구조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 (2000). 진로미결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4(1), 113-140.
- 조현주, 전태연, 채정호, 우영섭, 최정은, 기백석, 임현우 (2007). 우울장애의 불안, 신체화, 분노 증상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63-679.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설영 (2005). 문제해결검사의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34, 483-503.
-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5, 1247-126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g, H. S., & Erlin, G. A. (2005).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Swedish study of identity status using the EOM-EIS-III. *Adolescence, 40*, 378-396.
- Blustein, D. L., Devenis, I. F., & Kiden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yne, B.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447.
- Constantine, M. G., & Flores, L. Y. (2006). Psychological distress, perceived family conflict, and career development issues in college students of col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354-369.
- Creed, P., Patton, W., & Prideaux, L. (200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 47-65.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Germeijs, V., & Boeck, P. D.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 Germeijs, V., & Boeck, P. D. (2003). Career indecision: Three factors from decis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1-25.
- Gorde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ordon, V. N. (1998). Career decidedness subtypes: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386-403.
- Gordon, L., & Meyer, J. C. (2002). Career indecision amongst 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2*, 41-47.
- Guay, F., Ratelle, C. F.,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235-251.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Students: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256-266.
- Hartman, B. W., Fuqua, D. R., & Hartman, P. T. (1983). The predictive potential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chronic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103-108.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eppner, M. J., & Hendricks, F. (1995). A process and outcome study examining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26-437.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58-465.
-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 Lounsbury, J. W., Hutchens, T., & Loveland, J. M. (2005).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dedness amo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25-39.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40-446.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New York: John Wiley.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181-193.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78.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381-396.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ien, H. S. (2005). The validation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Scale in a Chinese cul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114-127.
- Tokar, D. M., Withrow, J. R., Hall, D.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Vondracek, F. W., Schulenberg, J., Skorikov, V., Gillespie, L. K., & Wahlheim, C. (1995).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career indeci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8, 17-29.
- Wanberg, C. R., & Muchinsky, P. O.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einstein, F. M., Healy, C. C. & Ender, P. B. (2002). Career choice anxiety, coping, and perceived control.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 339-349.
- 원 고 접 수 일 : 2007. 9.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 21
게 재 결 정 일 : 2008. 2. 1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 Identity, Anxiety/Depression and Obsession to Career Indecision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Jung-Hee Park

Eun-Hee Lee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s to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in adolescents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dolescence. It also examines how psychosocial resources (eg. social support) and personal resources (eg. self-control) ma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the above mentioned psychological factors. Using a sample of 600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found that ego identity had a greater effect on career indecision than anxiety/depression and obsession. Another important finding is that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were foun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depression and career indecision. Finally,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appeared to play a partial rol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ssion and career indecision.

Key words : ego Identity anxiety/depression, obsession, career indecision self control, social support.